

서울 첫 '공영형 사립학교' 출범 총암고, 4년간 12억 지원 받는다

사립학교 혁신모델 시범 운영
이사회, 교육청 추천 인사들 배치
2년 후 중간평가... 추가지원 결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사립학교인 총암고등학교가 내달부터 '공영형 사립학교'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사학공공성 강화 요구가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립학교 혁신모델인 '공영형 사립학교'를 시범 운영할 학교로 총암고등학교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임원 정수 일부를 교육청 추천 임원으로 선임해 의사결정 체제의 공공성을 높이고, 안정적 행·재정 지원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통해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립학교 모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

를 거쳐 총암고등학교를 최종 선정하고 12월 1일부터 공영형사립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에는 교육청 추천 인사들이 배치된다. 총암고등학교는 전체 이사의 1/3 이상 1/2 미만, 그리고 감사 1명을 교육청 추천 인사로 구성하는 공영형 이사회를 두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연차별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학교에 시정·지도를 하고, 2년 후 중간평가를 통해 추가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총암고는 앞으로 4년간 공영형 사립학교 추진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연간 환경개선비 2억 5000만원, 특색사업비 5000만원 등 총 3억원 씩 4년간 총 12억원 지원받는다.

교육감 학교지원과 학교법인팀 과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공영형 사립학교가 첫 발을 내딛게 된 만큼 행·재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해 사업 성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라며 "향후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사례를 타 사립학교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법인 총암학원과 총암고등학교는 공영형 사립학교 운영 목표에 제시한대로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 기반 조성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실현 ▲학생 인권 존중의 학교 문화 정착 ▲청렴과 민주성에 바탕을 둔 학교문화 혁신을 이뤄 학교법인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재정 투명성 및 책무성 확보라는 공영형 사학의 모범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영형 사립대학 모델로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서울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이어 공영형 사립학교 출범으로 꽃피웠다"며 "공영형 사립학교로의 발걸음을 시작한 총암학원 공동체에 감사를 표하고, 서울시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여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학의 공공적 운영모델 정립을 위한 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한양대, 성동구와 '스타트업 서밋' 개최

혁신 창업기업 성과 발표

한양대(총장 김우승)가 25일 서울 성동구 서울캠퍼스에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와 함께 'HY-성동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동구와 한양대가 발굴한 혁신 창업기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기업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HY-성동 캠퍼스타운 데모데이 ▲VC토크콘서트 ▲창업기업 만남의 장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대학과 자치구가 발굴한 창업팀 91명 및 외부 투자사, 자치구 및 대학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캠퍼스타운 데모데이에서는 2021년 한양대 캠퍼스타운 소속의 40개 창업팀이 대면심사를 통해 올해 성과 및 내년 계획을 발표했다. 성과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0개 팀에는 '22년 1월부터 6월까지 창업활동공간 제공 및 창업시상금 3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이어진 VC토크콘서트에서는 대교인베스트먼트 김재업 이사, 블루포인트파트너스 황희철 본부장, 대성창업



지난 25일 서울 성동구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한양대-성동구 캠퍼스타운 스타트업 서밋'에서 (왼쪽부터) 전상경 한양대 창업지원단장, 김우승 총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양대

투자 김소희 수석팀장, 빅베이슨캐피탈 홍선기 책임심사역을 초청해 투자 유치 노하우와 투자 협상 시 유의점 등 기업이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 창업기업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기업 간 네트워킹을 위한 창업기업 만남의 장에서는 창업기업 간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상호 협업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당일 행사에 참여한 VC 및 창업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등에 대해 기업별로 맞춤형 상담시간까지 이어졌다.

/이현진 기자

한양사이버대, 온라인교육 '새 표준' 마련

사이버대학 중 재학생수가 가장 많아
탄탄한 교육 기반... 장학금 지급 1위

2021년 대한민국의 미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전통적인 학교 수업 방식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렇다면 다가올 '위드코로나' 시대의 대학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그 해답을 국내 사이버대학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찾을 수 있다.

한양사이버대는 2021년 현재 11개 학부 40개 학과(공유전공 포함)에 재적 학생 1만7885명(2021년 정보공시기준)으로, 사이버대학 중 학생 수가 가장 많다.

학생들이 한양사이버대를 찾고 인정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학생 중심의 탄탄한 교육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한양사이버대는 국내 사이버대학 가운데 학생 수뿐만 아니라 전임 교원 수 역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강의 및 관리를 위해 우수 교원 채용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수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비율 역시 국내 사



한양사이버대 전경

/한양사이버대

이버대학 중 가장 높다.

◆ 사이버대 최다 학생 재학...장학금 지급액 '1위'

대학원 역시 국내 온라인대학원 중에서는 가장 많은 학생인 1120명이 석사과정이 재학 중이다. 이는 국내 특수대학원 중에서도 월등하게 많은 숫자로, 사이버대학원 중에서는 압도적인 1등을 유지하고 있다.

한양사이버대는 2002년 개교 이후 19년이 지난 2021년 8월까지 졸업한 동문이 약 3만 8000명에 이른다. 이 중 약 9%에 해당하는 3300명은 대학원을 진학하는 등 학업의 뜻을 이어갔다.

한양사이버대는 개교 이래 등록금을 단 한 번도 인상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9%가 증가한 226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학생 중 95%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약 161만원 장학금을 받았다.

◆ KS-SQI(서비스품질지수) 사이버대학부문 7년 연속 1위

한양사이버대에 대한 학생 만족도는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지난 4월 '2021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사이버대학부문 1위에 11년 연속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6월에는 '대한민국교육브랜드대상'에서 16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이현진 기자

한신대, 문학상 수상자·등단자 4명 배출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문예창작학과 및 문예창작대학원 출신 동문 중 올해 문학상 수상자 및 등단자 4명을 배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예창작학과 허태연(04학번) 동문은 '너를 찾아서'라는 작품으로 제11회

혼불문학상 대상에 선정돼 지난달 16일 혼불문학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혼불문학상은 '혼불'의 작가 최명희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1년 제정된 상으로, 특히 올해는 역대 가장 많

은 374편의 작품이 접수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너를 찾아서'는 60대 알코올 중독남의 버킷리스트를 소재로 황혼기 새 인생 찾기와 가족과의 화해를 꾸밈없고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 소설이다. 이 소설은 원제와 다르게 '플라멩코 추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 저소득가구에 연탄 5000장 전달

올해 4번째 '따뜻한 세상 만들기'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가 지역 저소득 가구와 독거노인 등 이웃들에게 연탄 5000장을 배달하며 나눔 온기를 전달했다.

28일 인하대에 따르면,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 '따뜻한 세상 만들기' 행사에 학생 70여 명과 조명우 인하대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20여 명 등 90여명이 일일봉사자로 참여해 연탄을 날랐다. 연탄 나눔 행사는 한진그룹의 후원과 인하대 학생사회봉사단 인하랑, 총학생회 등 인하나눔봉사단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연탄은 미추홀구 학익동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가구의 가정에 배달했다. 작년보다 약 2000장 늘어난 총 5000장의 연탄을 40여 가구에 한 가구당 100여 장씩 전달



인하대 '따뜻한 세상 만들기' 행사가 열린 26일 조명우 총장(오른쪽)을 비롯한 학생, 교직원들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 이웃 주민들에게 연탄나눔봉사를 하고 있다. /인하대

해 연탄창고를 채웠다.

조명우 총장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은 대학의 주요 역할 중 하나"라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달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 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현진 기자

중앙대, 김무환 포항공대 총장 초청특강

의과학 분야 공동학위제 개설 논의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김무환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총장 초청특강을 실시하고, 의과학 분야 공동학위제를 개설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중앙대는 26일 중앙대병원 송봉홀에서 김무환 포항공대 총장의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자력공학자로 잘 알려진 김 총장은 중앙대와 중앙대의료원 관계자들에게 '대학에서 메타대학까지, 그리고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까지(From University to Meta-University plus Innovative Healthcare)'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포항공대의 현 상황과 건학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 등을 소개한 뒤 가상현실을 뜻하는 메타버스(Metaverse)와 대학을 뜻하는 유니버시티(University)를 합친 '메타버시티(Meta-University)'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순서로 강연이 이어졌다.

포항공대는 현재 국내 대학 최초로 신입생 전원에게 가상현실(VR)기기를 제공하고, 한 학기 동안 외국에서 활동하며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는 '오프 캠퍼스 시메스터(off campus semester)' 도입을 고려하는 등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메타버시티를 구현하기 위해 구슬땀을 쏟고 있다.

/이현진 기자